

#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 계속된다

### 제주시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9차기 방제사업 추진 항공방제·예방주사 우선... 전자예찰함 시스템 도입

지난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2012년 기점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제주도 내 소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제9차기 사업이 이달부터 실시된다. 이번 9차기 방제사업에는 QR코드와 전자예찰함(NFC) 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인 방제예찰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9차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9차기 방제사업은 제8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통해 방제목 3만2798그루의 70%인 2만3000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하게 된다.

또한 주요 오름 등 우량 소나무림 지역에 대한 드론항공방제(면적 108ha)와 예방나무주사(면적 500ha)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또 기존 고사목 라벨지를 대체해 QR코드를 활용한 마킹태이프와 전자예찰함을 이번 방제시스템에 도입할 방침이다. NFC는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주요 소나무림에 설치하여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9월 제주시 오라골포장 인근에서 최초 발

생했다. 이후 2012년 기점으로 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주도에서는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연례적인 8차기 방제사업을 통해 총 175만 그루를 방제했다.

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적기 방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제주도 실정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제전략을 수립해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정당·정파 초월해 원희룡 지지한다”

### 도의정회·교육청의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전 지사의 대권 도전은 그 자체로 우리 제주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여주고, 약한 도세 속에서 자라나는 제주 청소년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 주는 소중한 일로써, 전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 간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요즘, 도덕성을 검증받은 원 전 지사는 흠없는 정치인의 상징으로서, 그 어떤 대선 후보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시대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그 어떤 지도자보다 먼저 알고, 슬기롭게 대응해 국가와 세계의 번영을 동시에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원 전 지사가 대선 주자로 결정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이념이나 정당, 정파를 초월해 오직 제주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도민 여러분의 동참도 기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다혜기자

## 일요일은 ‘투명페트병 데이’ 종량제봉투 10장 교환·제공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 투명페트병 데이가 운영된다.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에 재활용 도움센터로 투명페트병 1kg을 가져가면 종량제봉투(10ℓ) 10장과 교환해주는 투명페트병 데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투명페트병, 음료수캔, 종이팩, 폐건전지를 재활용도움센터로 가져가면 1kg당 종량제봉투(10ℓ) 1매로 교환해주는 자원회수통합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일 넷째주 일요일에는 10매로 교환해주는 자원순환데이를 운영 중이다.

시는 여기에서 매주 일요일을 투명페트병 데일로 지정 운영해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이 시작되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재활용 도움센터 외에 읍·면사무소 등에서도 별도 요일 및 시간대를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페트병 데이를 포함한 자원회수보상제에 20회 이상 적극 참여한 모범 시민에게는 접이식 카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테이크아웃 컵 및 투명포장용기는 투명하더라도 투명페트병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인만큼 투명페트병과 별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배출할 때는 반드시 내용물은 비운 뒤 라벨을 떼고 압착해 투장을 담아 별도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형기자



4일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홀에서 개막한 ‘2021 세미-세계제주인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2021 세미-세계제주인대회’ 개막

### 오늘까지 메종글래드서 진행 발표·토크쇼 등 유튜브 중계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홀에서 ‘2021 세미-세계제주인대회’가 ‘하나되는 제주인, 제주의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개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4-5일 이틀 간 열린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가자는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재일 제주인 공덕비 공헌자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재일제주인 공헌자를 대신해 제주 거주 연구자가 대리 수상했다. 고남진(애월읍 장전리), 김남귀(구좌읍 행원리), 홍성인(한림읍 명월리), 홍순일(애월읍 봉성리)씨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에서는 김용민 워싱턴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용민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양일훈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장, 박상욱 EnE Bridge 중국·인사 컨설팅 총괄, 전경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Duy Tan대학교 외국어대학

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대회 2일차 5일에는 차세대·청년 제주인 세션을 통해 청년 취업과 문화·예술 분야 등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세계제주인 토크쇼도 이어진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는 세계 각국, 각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제주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제주인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제주인의 역량을 함께 키우며 제주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자연체험파크 삼수 끝 ‘조건부 통과’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식물·지형 보존 방안 요구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삼수 끝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건부 동의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계획, 특이지형 보존 방안 등에 대해 심의를 요구했다.

이날 열린 심의에서 심의위원들

은 보호식물인 제주고사리삼 등 자생식물에 대한 원형 보존과 꽃자왈 융양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산1번지 일대 74만 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주 사과리조트 조성사업’을 명칭으로 지난 2015년 사업이 추진됐지만, 환경 훼손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과리 사업을 포기했다. 이어 지난해 ‘가족형 자연체험 파크’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씩염,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중축/리모델링 최정실 리모델링/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 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 도배/장판/몰딩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메터 녹물경고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수확의 동반자 “과일망태”

더 이상 허리속여 수확하지 마세요!

- 작물 수확하는 수확용 기구 ‘과일망태’
- 허리 피로가 크게 감소, 작업능률 대폭 상승
- 두툼한 등·어깨 패드로 오래 작업해도 편안함
- 사과, 감, 귤, 대추, 키위 등 과일 / 옥수수, 피망, 파프리카, 가지 등 갖가지 채소 수확에도 편리함

과일망태 착용 장면

▲ 과일망태 착용 후면 ▲ 과일망태 착용 후면 ▲ 과일망태

처진 가지 들어 올릴때, 안파고 드는 “안파고”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 사과, 복숭아, 자두 등 다양한 나무 견인 작업에 특화된 효과.
- 사다리에서도 편리하고 오래 작업해도 손이 아프지 않음.
- 초간편 원터치&위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 안파고 110호 (약은 고리 × 1.5m)
- 안파고 150호 (약은 고리 × 1.5m)
- 안파고 210호 (약은 고리 × 1m)
- 안파고 215호 (약은 고리 × 1.5m)

까지·까마귀·새 쫓을 때!~ 다인독수리연

4m 풀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풀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풀, 비스듬에도 다릅니다!

과수 유인줄, 유인줄, 이물림 기타 영농장재

상당 및 문의

DA IN 다인산업 054-652-3725

경북 예천군 보현면 신안길 11-28(신안면 609)

홈페이지 www.dainfine.com